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Well-being Indicator” for OECD Countries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계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글은 OECD와 유럽연합이 함께 개최한 ‘웰빙과 발전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안된 지표인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 7개 분야 총 26개 지표를 활용하여 OECD 30개 회원국의 행복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행복 수준은 30개 회원국 중 25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등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 다원화되고 다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시사하는 결과이다.

1. 서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복 추구를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셈이다. 굳이 법적인 보장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삶의 질 또는 웰빙(well-being)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으로써 행복추구 보장이라는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다.

행복 추구를 국가의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행복이란 개념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행복이란 개념에는 삶 속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는 다분히 질적인 성격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요인은 경제적인 소득에서부터 사회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할 것이며, 사회문화적 환경, 소속된 집단의 가치 준거기준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소득과 생활수준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들어 GDP를 삶의 질 향상의 일차적인 지표로 평가하지만, 신경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의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생태

흔적(ecological footprint)이, 부탄 정부의 총행복 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에서는 정신적·영적·종교적 영역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평가된다. 이는 동일한 시기의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표의 선택과 가중치 부여 등에 따라서 행복수준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복지국가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지표화된 ‘행복지수’는 국민들의 단면적인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준다는 서술적 의미와 더불어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사회정책의 개발과 계획,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행복지수는 사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성 유지와 정책우선순위 설정,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공인받은 측정지표를 특정 국가에서 다년간에 걸쳐 적용하거나 다수의 국가에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은 한 국가의 사회발전의 정도와 그 결정요인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점과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 30개국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한 행복지수(well-being index)를 산출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 위치 파악과 향후 사회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행복 수준 또는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기존의 노력을 살펴본 후, OECD의 ‘삶의 질과 발전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안되었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7개 중분류에서 26개 세부지표를 확정하였고, 측정결과는 전체 순위 및 7개 중분류별로 제시해 보았다.

2. 행복 수준 측정을 위한 노력들

1) GDP와 이스털린의 역설¹⁾

GDP는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에 국한되는 개념이지만, 삶의 질 수준 결정에서 경제적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경험적 가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현실적 환경이 결합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 및 사회발전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물론 소득수준은 행복수준 제고를 위한 일차적인 물적 기반이 되며, 이를 반영하는 GDP는 객관적 산출을 통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장에

1) 사회발전지표로서 GDP의 장단점과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는 박명호(2009),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성과와 경제사회발전지표」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외부 효과 반영에 약점이 있으며 여가를 비롯한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 GDP의 한계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과연 경제지표만으로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GDP만으로 행복 또는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준 사례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 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빈곤선에 근접할수록 소득과의 강한 관련성이 나타나며, 한 국가 내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미국 국민의 행복 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의 기본 욕구(basic needs)가 충족된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행복 체감도가 소득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참고로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에서 1만 5천 달러 사이에 도달하면 국가의 정책 기조는 경제 중심에서 삶의 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한다고 한다.

2)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행복 수준 측정에 있어서 GDP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 작업 결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지표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이다. 인간개발지수의 기본적인 가정은 사람들의 삶의 질 수준이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강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계발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량 이론(capability approach)에서 비롯한다.²⁾ 이에 따라 인간개발지수는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가지 차원으로서 ① 건강한 장수(a long and healthy life), ② 지식(knowledge), ③ 적절한 삶의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을 제시하였고, 이를 네 가지의 지표로 나타낸 후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연속 세계 2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호주, 아이슬란드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는 행복 수준의 측정을 ‘개인의 능력 계발’ 차원으로 확장시킴으로서 일인당 국민소득 위주의 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제기구에 의한 전세계 국가들의 수준 비교라는 성과를 거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인간개발지수는 차원을 대표하는 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과소하다는 점과 아울러 인간개발지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 중위, 하위 국가들 간에는 인간개발지수 구성요소의 가중치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

2) 박명호, 앞의 글, p.15

표 1. UNDP의 인간개발지수

차원	지표	차원지수
건강한 장수 (a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 기대여명	평균수명지수
지식(knowledge)	• 성인문자해독률	교육지수 = $2/3(\text{성인문자해독률}) + 1/3(\text{교육기회})$
	• 교육기회(취학률)	
적정한 삶의 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	• 1인당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지수

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³⁾.

3) 신경경제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의 행복지수

런던에 본부를 둔 신경경제단(NEF)이 산출하여 발표하는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는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학적 관점이 반영된 행복지수이다. HPI는 ① 주관적 생활만족도 ② 기대여명 ③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생태흔적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활용하는 면적(작물재배, 목초지, 어장, 시가지 등)과 기타 활용가능한 가용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GDP를 비롯한 소득 및 경제적 조건들은 배제된다.

이와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여 2009년에 발표된 세계 143개국 행복지수 결과에 따르면 코스타리카가 89.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도미니카(76.1점), 자메이카(70.1점) 등의 순으로 순위가 높았다. 반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는 멕시코(55.6점)가 23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미국(30.7점) 114위, 일본(43.3점) 75위, 영국(43.3점) 75위 등은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는 44.4점으로서 68위를 차지하였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와 신경경제단의 행복지수(HPI)는 행복수준의 측정에서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선진국들의 경우 GDP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들 및 경제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기대여명, 교육기회)로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에서는 상위 순위를 점하는 반면, 주관적 생활만족도와 환경·생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HPI에서는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시기의 동일한 국가라 하더라도 어떠한 영역에 높은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상이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3) 이현재(2006),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의한 인간개발지수의 평가」, 『산업경영연구』 제29권제5호, p.227~244

4) 개별 국가 정부의 행복수준 측정 사례

행복수준의 측정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기도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산출을 통해 사회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고 정책 집행에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별 행복지수 사례는 캐나다의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인데, 이 지표는 1999년 앳킨스 자선재단(Atkinson Charitable Fund)에서 시작된 이후 2010년에 최종 결과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 CIW는 <표 2>와 같은 7개 영역, 35개 지표로 구

표 2.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의 구성

Domain	Indicator
1. Living Standard (생활수준)	1) 안정적 고용(secure and meaningful employment) 2) 적정 소득(adequate income) 3) 저임금 비율(low-income) 4) 빈부격차(gap between rich and poor) 5) 식품안전성(food security) 6) 충분한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2. Time Allocation (여가시간사용)	1)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 균형(balance between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2) 시간활용에 대한 결정권(the capacity to make choices about the use of time) 3)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the stress of overload)
3. Healthy Populations (건강)	1) 주관적 건강인식(self-rated health) 2) 건강상태(functional health) 3) 건강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expectancy) 4)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5)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6) 순환계질환·암·호흡기질환·당뇨에 의한 이환과 사망(mortality and morbidity due to circulatory diseases, cancers, respiratory diseases, and diabetes) 7) 우울증과 자살률(rates of depression and suicide) 8) BMI(Body Mass Index) 9) 흡연(smoking) 10) 신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
4. Ecosystem Health (생태계의 건전성)	1) 깨끗한 공기와 물(good air and water quality) 2) 삼림, 토양, 해양환경(healthy forests, soils and marine environment) 3)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 4) 쓰레기 재활용(waste diversion) 5)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 ability)

〈표 2〉 계속

Domain	Indicator
5. Educated Populace (교육)	1) 기초언어능력(literacy) 2) 기초수리계산력(numeracy) 3) 교육성취와 질에 대한 지표(indicator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quality)
6. Community Vitality (지역사회 활력)	1)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ies) 2) 결속력(cohesion) 3) 형평성(equity) 4) 다양성(diversity) 5) 정체성(identity) 6) 문화(culture) 7) 예술 및 여가활동(arts and recreation)
7.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1)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성되며,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으로서 적절한 소득 및 고용에서부터 건강과 교육, 지역사회의 건전성과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복수준의 측정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다. 부탄은 GDP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난한 국가이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가평가하는 국민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국민행복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웰스트리트 저널은 부탄 국민들을 ‘행복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이른바 ‘부탄 모델’이라고 불리는 부탄 정부의 국민행복 실현 실험은 가치있는 연구대상으로 평가받는다.

부탄 왕실과 부탄연구센터(The Centre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평가하는 국민총 행복지수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관적

으로 판단하는 정신적·영적·종교적 요인이 강조된다.

3. OECD 행복지수 산정

1) 측정 지표

행복수준의 측정에 있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행복이란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련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경제적 요인과 같은 일부 특정요인에 치중된 측정을 배제하고 다양한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수준의 다양한 차원을 감안하여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 개

표 3.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세부지표 구성

영역	세부지표
정신적 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기도문 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karma) 횟수, 자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 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
생태(ecology)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의 식물상태
건강(health)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 기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교육(education)	교육연수, 문자해독률, 지역의전설에 대한 지식
문화(culture)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도, 절도에 대한 태도
삶의 수준 (living standard)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족의 사급한 유지보수
시간활용(time use)	근로시간, 수면시간
지역사회 활력 (community vitality)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간 이해심, 가족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수, 기부, 사회적 지지

최한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안된 지표인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차용하였다. 국가행복지수에서는 인간의 삶의질 수준을 먼저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화폐적(경제적 자원 연관 요인) 지표와 비화폐적(사회적 연관 요인) 지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평가한다.

주관적 측정을 행복 측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들의 현상향과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로 판단된다. 객관적 지표로는 전통적인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을 고려하되,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을 활용하여 GDP를 대체

하였다. 또한 인간의 삶의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객관적인 환경과 아울러 건강이나 지적 능력 등 인간의 역량(capability) 개발에 관련한 요인들을 중시한 UNDP의 인간개발지수의 문제의식을 차용하여 자립과 건강의 차원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불안정성과 연대가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여기서는 NIW에서 제시된 세부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여 보았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체(추가)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7개 범주 27개 지표는 <표 4>와 같으며,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부록표>에 제시하였다.

표 4. 행복지수 산정을 위한 최종 지표

구분 1	구분 2	범주	NIW 세부지표	대체(추가) 지표	최종지표
객관적 지표	화폐 지표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국민순생산(NNI)		국민순생산(NNI)
			가구가처분소득		가구가처분소득(중위)
			여가시간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균등소득분배
	비화폐 지표	사회적 요인 ① - 지립	고용율		고용율
			미취업가구원 비율		미취업가구원 비율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학업성취도
		사회적 요인 ② - 형평성	Gini 계수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
			-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
		사회적 요인 ③ - 건강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출생시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건강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율		영아사망율
		사회적 요인 ④ - 사회적 연대	잠재적 수명손실		잠재적 수명손실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원봉사참여율
			자살율		자살율
			감옥수감자 비율		감옥수감자 비율
		환경 요인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율
			-	대기환경	1인당 CO2 배출량
				수질환경	정수시설 활용인구
				생활환경	1인당 쓰레기배출량
				토양환경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주관적 지표	주관적 생활만족도	주관적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2) OECD 국가별 순위 산정 방법(표준화 및 가중치 부여)

〈표 4〉에서 제시한 지표들은 그동안 행복수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 온 것이긴 하나,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종

합적인 척도는 아니므로 이를 표준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표준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의 지표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부터의 간격을 감안하여 표준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수식화하면 아래 식과 같으며, 빈곤율이나 범죄피해율과 같은 역기능 지표의 경우

에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자 부분을 [최대값-해당 국가 지표값]으로 바꾸었다.

$$Z_{ij} = \frac{X_i - \min(X_i)}{\max(X_i) - \min(X_i)}$$

i : 지표 j : 국가

$\max(X_i)$: 해당 지표중 최대값

$\min(X_i)$: 해당 지표중 최소값

세부지표들을 하나의 종합(aggregation) 지표

화하기 위하여 지표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건강증진, 기초보장, 사회보험, 저출산·고령화, 복지서비스 등 6개 분야에 각 9명씩 총 54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표별 가중치와 범주별 가중치 부여를 요청하였다. 가중치 부여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는 총 31명이 응답하였으며, 세부지표별 가중치와 범주별 가중치는 다음 <표 5>와 같다.

범주별 가중치 조사에서는 건강과 경제적 요

표 5. 범주 및 세부지표별 가중치

범주		세부지표	
요인	범주별 가중치	지표	지표별 가중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0.178	NNI	0.270
		가처분소득	0.270
		여가시간	0.231
		균등소득분배	0.229
		소계	1.000
사회적 요인 ① - 자립	0.132	고용율	0.419
		미취업가구원 비율	0.207
		평균 교육년수	0.202
		평균 학업성취도	0.172
		소계	1.000
사회적 요인 ② - 형평성	0.119	Gini 계수	0.272
		상대빈곤율	0.246
		아동빈곤율	0.163
		노인빈곤율	0.173
		성별임금격차	0.146
		소계	1.000
사회적 요인 ③ - 건강	0.179	출생시 기대수명	0.242
		건강수명	0.384
		영아사망율	0.212
		잠재적 수명손실	0.162
		소계	1.000

〈표 5〉 계속

범주		세부지표	
요인	범주별 가중치	지표	지표별 가중치
사회적 요인 ④ – 사회적 연대	0.115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0.258
		자살율	0.306
		감옥수감자 비율	0.172
		범죄피해율	0.264
		소계	1.000
환경 요인	0.133	1인당 CO2 배출량	0.307
		정수시설 활용 인구	0.222
		1인당 쓰레기배출량	0.257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0.213
		소계	1.000
주관적 생활만족도	0.143	생활만족도	1.000
계	1.000		

인이 행복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연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오랜 복지국가의 전통과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북구 유럽국가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 산정결과

(2) 범주별 순위

(1) 종합순위

경제적 자원,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 7개 범주를 종합하여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5위를 차지하였다. 스위스가 종합점수 0.747점으로 1위였으며,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한 반면, 터키(0.310), 헝가리(0.404), 멕시코(0.430) 등이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한국의 점수는 0.475점으로 나타났는데,

종합순위 산출을 위해 활용한 구성요소들인 7가지 범주별로도 OECD 국가들의 순위를 산출하였다. <표 7>은 범주별로 1~10위까지의 국가와 한국의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한국은 자립 분야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부분의 범주에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 주관적 만족도 부분은 순위가 더욱 낮아서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과 삶의 질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표 6. OECD 국가 행복지수 종합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0.747	16	프랑스	0.626
2	룩셈부르크	0.745	17	호주	0.618
3	노르웨이	0.736	18	일본	0.617
4	스웨덴	0.734	19	벨기에	0.599
5	오스트리아	0.712	20	미국	0.588
6	캐나다	0.697	21	이탈리아	0.580
7	덴마크	0.692	22	그리스	0.556
8	아이슬란드	0.692	23	체코	0.548
9	핀란드	0.687	24	포르투갈	0.525
10	네덜란드	0.669	25	한국	0.475
11	영국	0.666	26	폴란드	0.450
12	뉴질랜드	0.649	27	슬로바키아	0.427
13	아일랜드	0.646	28	멕시코	0.430
14	독일	0.638	29	헝가리	0.404
15	스페인	0.633	30	터키	0.310

표 7. OECD 국가의 7개 범주별 순위

분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한국
전체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25위
경제적 요인	룩셈부르크	미국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22위
자립	스위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일본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	15위
형평성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프랑스	아이슬란드	헝가리	핀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27위
건강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호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23위
사회적 연대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	그리스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26위
환경	스웨덴	폴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멕시코	스위스	스페인	영국	프랑스	23위
주관적 만족도	덴마크	멕시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26위

4. 결론

현재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측정’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고(009. 8. 15 광복절 경축사), 통계청을 중심으로 건강, 노동, 교육, 주거, 안전, 가족, 환경, 사회통합, 문화, 소득 및 지출 등 10개 영역의 105개 지표(객관적 지표 80개, 주관적 지표 25개)를 통한 ‘한국인의 삶의질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국제기구에서 제안되어진 기준을 가지고 포괄적인 지표들을 활용해 순위 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경제적 자원,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만족도 등 7개 범주, 26개 세부 지표를 활용한 종합지표(composite index)로 OECD 국가들의 행복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순위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슷한 성격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순위(26위)와 유사한 것이었다. 물론 본 연구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행복지수로 판정할 수 없으며, 행복지수 산정의 근간이 된 국가행복지수(NIW) 자체가 주관적 요인의 비중보다 객관적인 요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happiness)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가중치 산정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상이한 적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적 수준에서 순위 자체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OECD 국가들의 행복수준 비교는 절대적인 순위의 의미보다는

현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산정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고용 및 교육관련 지표들로 구성된 ‘자립’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소득재분배와 빈곤 관련 지표들로 구성된 ‘형평성’ 및 자살과 사회적 안정성 관련 지표들로 구성된 ‘사회연대성’ 측면에서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10월 말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듯이 새로운 지표를 활용한 삶의 질과 사회발전 측정은 이제 본격적인 출발단계라 할 수 있으며, 주관적 생활만족도의 측정과 환경관련 지표들의 선택, 사회취약성의 측정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행복지수 연구는 문화와 환경, 현재 상황이 상이한 국가들의 비교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추가 연구와 아울러 일회성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 ‘변동’의 관점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더욱 다원화되고 다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사회에서 행복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를 통한 사회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문헌
목차

부록표.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통계지

	NNI	가치분 중위 소득	여가 시간	공동 소득 분배	고용률	미취업 가구원 비율	평균 교육 연수	학업 성취도	지니 계수	상대 빈곤율	아동 빈곤율	노인 빈곤율	성별 임금 격차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영어 사양률	경제적 수명 손실	자원 봉사 참여율	감옥 수감자	범죄 피해율	CO2 배출량	정수 시설 혜택률	쓰레기 배출량	농악 시용량	생활 빈족도	
Australia	26652	19905		20833	72.2	13.4	12.6	520	0.301	12.393	11.79	26.94	14.4	81.1	72.6	4.7	3228	37.9	10.2	126	16.3	18.3	690	8	7.3	
Austria	29950	19152		24583	70.2	9.4	12	502	0.265	6.617	6.17	7.50	32.9	79.9	71.4	3.6	3499	30.3	12.6	108	11.6	9.3	88.9	590	100	8.0
Belgium	28695	17398	296		60.4		11.3	510	0.271	8.794	9.97	12.82	9.3	79.5	71.1	3.7	3974	24	18.4	90	17.7	10.7	54.6	470	675	7.6
Canada	31827	19956	338	19167	72.9	5.5	13.2	529	0.317	12.048	15.06	5.87	22.6	80.4	72	5.4	3487	38.1	10.2	107	17.2	16.8	71.7	420	69	7.8
Czech Republic	16796	10613		11250	65.3	11.7	12.5	502	0.268	5.830	10.27	2.26	18.6	76.7	68.4	3.3	4338	18.2	12.7	189		11.5	73.6	300	104	7.1
Denmark	29304	16751		16667	76.9	8.7	13.4	501	0.232	5.280	2.74	10.03	12.3	78.4	69.8	3.8	3909	19.7	11.3	77	18.8	8.7	87.9	740	111	8.2
Finland	27669	16105	348	14583	68.9	7.3	11.2	553	0.269	7.330	4.17	12.72	20.1	79.5	71.1	2.8	3974	27.9	18	75	12.7	10.5	81.0	490	52	7.8
France	27599	17775	249	22500	62.3	11.1	11.6	493	0.281	7.091	7.64	8.79	11.7	80.9	72	3.8	3940	28.5	14.6	88	12	6.3	80.1	520	281	6.9
Germany	27120	18122	348	21875	67.2	16.1	13.4	505	0.298	11.040	16.29	8.51	24.1	79.8	71.8	3.8	3360	22.7	9.2	97	13.1	9.8	93.5	570	172	7.1
Greece	23790	19025		14688	61	8.3	10.9	464	0.321	12.613	13.23	22.66	13.8	79.6	71	3.7	3394	7.4	2.9	90	12.3	8.6	56.2	440	134	6.7
Hungary	15802	9453	310	11050	57.3	13.8	11.7	492	0.291	7.136	8.72	4.74	13.2	73.2	64.9	5.7	6784	6.3	21	163	10	5.7	59.8	470	115	5.7
Iceland	28732	21267			85.3		10.5	494	0.280	7.118	8.25	4.98		81.2	72.8	1.4	2881		10.4	39	21.2	7.4	57.0	530	1	
Ireland	31093	18157	351		68.1	9.6	13	509	0.328	14.786	16.30	30.57	19.7	79.7	69.8	3.7	3364	35	8.9	85	21.9	10.6	70.0	800	48	8.2
Italy	24096	17076	292	21250	58.4	9.9	10.1	469	0.352	11.400	15.50	12.80	17.1	80.3	72.7	4.7	3185	21.1	5.5	97	12.6	7.7	88.6	550	579	6.9
Luxembourg	66783	27331			63.6	6.6	13.3	485	0.258	8.100	12.39	3.09		79.4	71.5	2.5	3427		9.5	143	12.7	24.4	94.8	700	310	7.9
Mexico	9288	8109	169	7500	61	3.6	8.8	409	0.474	18.420	22.16	28.03		75.7	65.4	18.1		10.3	4.4	191	18.7	3.7	36.1	340	35	8.2
Netherlands	31215	17019		19000	72.4	11.3	11.2	521	0.271	7.673	11.53	2.12	21.7	79.8	71.2	4.4	3103	37.1	8.1	127	19.7	11.2	99.0	620	438	7.8
New Zealand	19714	15258		13750	73.2	9.6	12.6	524	0.335	10.800	15.00	1.53	17.4	79.9	70.8	5.2	4041	41.5	11.9	189	21.5	8.4	80.0	400	24	7.9
Norway	45161	20373	375	21000	75.5	11	13.9	487	0.276	6.800	4.60	9.06	80.6	72	3.2	3206	38.9	10.9	68	15.8	8.0	77.1	800	55	7.7	
Poland	11694	8986	298	10000	54.5	16.5	11.8	500	0.372	14.600	21.50	4.80	11.0	75.3	65.8	6	5338	10.4	13.2	228	15	7.8	61.4	260	51	7.0
Portugal	16982	13167		14375	67.9	4.8	8.5	471	0.416	12.870	16.55	16.62	14.7	78.9	69.2	3.3	4411	11.9	8.7	123	10.4	6.0	65.0	470	400	
Slovak Republic	13592	9961			59.4		12.5	482	0.268	8.120	10.93	5.93		74.3	66.2	6.6	5804	12.9	10.9	169		7.1	56.1	280	147	6.0
Spain	24230	16741	304	18333	65.7		10.6	476	0.319	14.100	17.30	16.62	13.6	81.1	72.6	3.8	3304	14.8	6.3	143	9.1	7.8	92.0	600	135	7.3
Sweden	30332	15959	326	16667	74.5	6.1	12.6	504	0.234	5.342	3.97	6.22	14.8	80.8	73.3	2.8	2825	12.4	11.1	78	16.1	5.6	86.0	500	54	7.7
Switzerland	31907	21779		24000	77.9	4.1	13	514	0.276	8.690	9.43	17.56	22.6	81.7	73.2	4.4	2952	34.1	14.1	83	18.1	6.0	96.7	700	102	8.0
Turkey	8210	5821		3333	45.9	7.3	9.6	432	0.430	17.530	24.59	15.09		71.6	62	22.6		7.5	16.3	76	3.0	35.9	430	45	7.5	
United Kingdom	29756	20136	327	23125	72.5	13.5	12.6	502	0.335	8.250	10.08	10.32	20.0	79.1	70.6	5	3459	28.7	6	143	21	8.8	97.1	590	197	7.6
USA	38577	30767	306	32500	72	4.9	13.3	482	0.381	17.132	20.59	23.56	21.6	77.8	69.3	6.9	5066	41.9	10.1	738	17.5	19.4	71.4	760	77	7.3
Japan	25440	17701		21300	70	2.8	12.4	517	0.321	14.932	13.69	21.97	33.9	82.4	75	2.6	2757	24.7	19.1	62	9.9	9.5	69.3	410	1397	7.0
Korea	19752	12061	318		63.8		12	542	0.312	14.600	10.20	45.13	39.8	79.1	67.8	5.3	3842	21.3	21.5	97	11.2	9.3	83.0	370	1340	6.4